

베네수엘라 부패의 확산: 역사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달관(단국대)*

| |
|-------------------------------|
| I. 서론 |
| II. 식민시대의 부패(16-18세기) |
| III. 독립시대의 부패(1830-1957) |
| IV. 폰토피호 협약 체제와 부패(1958-1998) |
| V. 차베스와 네오포플리즘의 등장(1998-2006) |
| VI. 결론 |

I. 서론

199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기존 정치권에 속해있지 않았던 차베스(Hugo Chávez)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것은 최근 40년간(1958-98) 폰토피호 협약 체제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때문이었다.¹⁾ 차베스가 57%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의 지배세력은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을 염려했다. 차베스는 새로운 헌법을

* Dal-Kwan Kim(Dankook University, mundokdk@hanmail.net), “The Diffusion of Political Corruption in Venezuela: Focusing on the Historical Factor.”

1) 1958년 중도좌파 정당과 중도우파 정당의 지도자들이 석유수익에 기초한 연립 정부를 위한 폰토피호 협약(Pacto de Punto Fijo)을 체결함으로써 40년간 폰토피호 협약 체제가 형성되었다. 세계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부패정도는 1995년 38위(총41개국), 1996년 48위(54), 1997년 44위(52), 1998년 77위(85), 1999년 75위(99), 2000년 71위(90), 2001년 69위(91), 2002년 81위(102), 2003년 100위(133), 2004년 114위(145), 2005년 130위(158), 2006년 138위(165)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베네수엘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존 지배세력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했다.

세계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Abuse of public power for private benefits)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패는 지역·민족·인종 등과 관련 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부패의 수준·범위·충격 등은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이에 대해 세계투명성기구의 부패개념은 편향적이라 보았는데, 왜냐하면 문화마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서로 다르고, 실제로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혼재했기 때문이다(Collier 2001, 160-161).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시대에 왕실과 국가의 구분이 매우 복잡하게 섞여있었고, 독립시대에도 강력한 까우디요(Caudillo)의 등장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구분이 어려웠으며, 폰토피호 협약 체제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잔존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치문화에서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오랫동안 혼재했다(Tulchin 2000, 10).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부패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두 지역의 부패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부패가 체제 내부에서 발생한다면 (Take place within in the system),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는 체제 그 자체(It is the system)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Little 1996, 10; Maingot 1994, 61).²⁾ 또한 최근의 선진국과 라틴아메리카 부패 비교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부패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손상시켰으나 민주적 체제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부패는 많은 새로운 민주정권의 핵심적인 요소에 피해를 주었는데, 그 예로 1990년대 초 9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탄핵되었다(Canache 2005, 94).³⁾ 즉 선진국

2) 본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In the case of the USA, corruption exists within the system, whereas in the case of Latinamerica, corruption is the system”.

3) 선진국 부패의 예는 이탈리아(the “clean hands” investigation), 독일(Helmut Kohl), 미국(Rep. James Traficant, D-Ohio), 영국(Peter Mandelson)이고,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예는 페루(알란 가르시아 1985-90), 브라질(페르난도 콜로르 데 메요 1990-92), 멕시코(살리나스 1988-94), 에콰도르(압달라 부카람 1996-97, 파비안 알라르콘 1994-98, 하멜

과 라틴아메리카 부패는 공통적으로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그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정치체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요인의 핵심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구분의 혼재와 폐쇄적인 강력한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위계적 귀족사회, 연고주의, 권위주의, 친족주의, 가톨릭 문화⁴⁾ 등이 식민시대에 라틴아메리카에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독립시대에서 현재까지 ‘강력한 대통령제’(Hyperpresidentialism)에 영향을 주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대통령은 주요한 몇 명의 보좌관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법을 우회하여 행정명령으로 통치하며,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패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강력한 대통령제와 허약한 시민사회는 정당의 실패, 여당의 책임축소, 언론협박, 선거조작 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를 확대시켰다(Collier 2001, 163).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부패를 이해하기 위한 3가지 설명유형이 있는데,⁵⁾ 첫 번째 유형은 문화행위론이다. 부패의 문화적 설명은

마후앗 1998-2000), 콜롬비아(에르네스토 삼페르 1994-98), 아르헨티나(카를로스 메넬 1989-99), 페루(알베르토 후지모리 1990-2000) 등이다.

- 4) 라틴아메리카 부패는 엄격한 청교도보다는 “도덕적으로 겸손 떠는”(Morally condescending) 가톨릭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Tulchin 2000, 174).
- 5) 일반적인 부패연구의 접근방법은 도덕적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기능적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법 등이 있다. ①도덕적 접근법(Moralistic approach)이란 부패는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이고, 부패에 개입된 사람의 특정한 품성, 성격 그리고 탐욕 등이 부패를 유도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부패현상을 분석하는 데 개인의 규범행위와 실제행위와의 간극에 초점을 두는 심리적 접근법이다. ②제도적 접근법(Institutional approach)이란 부패현상을 법과 제도 그리고 그 관리상의 비합리성·모순·비현실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조성되는 것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제도적 접근법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원인이나 조건을 규명하는 접근법이다. ③기능적 접근법(Functional approach)은 부패행위의 결과와 효과만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부패행위의 효과는 사회 통합적 역할이나 비통합적 역할로 나타나는데, 부패는 도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④사회·문화적 접근법(Socio-Cultural approach)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인간의 가치관, 신념체계, 태도 등의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데, 부패현상도 사회·문화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전수일 1999, 26-40).

라틴아메리카의 일반성 및 사회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문화전달론(Theory of cultural transmission)으로 일탈행위를 비난하기보다는 관료의 부패가 인정되는 가치체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적 친분관계(Differential association)로 소집단의 개인적 친숙함으로 인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긴장이나 사회갈등을 강조한다.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계층화 성격으로 인한 합법적 사회이동과 상승의 장애물 때문에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일탈적 수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개인선택이론이다. 이것은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은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서 유용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이론화에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한편으로 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도덕적 윤리관, 공식적 제재의 두려움, 공식적 불인정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인 물질적 이득과 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Maingot 1994, 54-56).

라틴아메리카 부패를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3가지 유형에서, 개인선택이론은 개인의 관점을 중시하고, 사회긴장과 사회갈등을 강조하는 이론은 구조적 관점을 중시하며, 문화행위론은 개인과 사회구조의 중간적 입장이다.

3가지 유형은 모두 고유한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문화행위론과 보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역사적 관점을 취하려는 이유는 첫째, 프리덤 하우스는 1995-1996년 동안 세계 인구의 19.5%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고, 41.5%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으며, 39%는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⁶⁾ 즉 80%의 세계 인구가 정당성 있는 정부, 존중되는 정당한 법률, 자유, 투명성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패에 대한 제도적 접근법에 한계가 있으며, 부패는

6) Freedom House(1996), *Freedom in the world 1995-96, The Annual Survey of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New York.

제도적 환경의 예외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베네수엘라는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300년간 스페인의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물론 베네수엘라에도 부패관련법이 있다.⁷⁾ 하지만 역사적 접근이 베네수엘라 부패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라 판단된다.

부패행위와 사회의 대응은 순환적(Cyclical)으로 발생하고 부패처벌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에 따라 변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네수엘라에서 정치부패를 이해하기 위해 부패가 '왜'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통해 의미가 변모했는지를 분석한다. 즉 부패의 동기와 이유 및 배후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베네수엘라 부패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툴친(Joseph S. Tulchin)과 리틀(Walter Little)의 연구가 있다.⁸⁾ 이 연구들은 1990년대 베네수엘라 부패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널리즘적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부패사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①식민시대(16-18세기) ②독립시대(1830-1957) ③폰토피호 협약 체제(1958-1998)로 시기를 구분하여 역사적 측면에서 부패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베네수엘라 부패의 역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리선상에서 차베스와 네오포플리즘 등장 of 함의를 논의한다.

7) 베네수엘라 부패관련법은 Ley de Salvaguarda del Patrimonio Públicos와 Ley Orgánica de Protección del Patrimonio Públicos 등이 있다. 베네수엘라 법률은 부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공공행정에서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②현금이나 이득을 대가로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는 불법행위, 현금이나 이득을 대가로 받았거나 또는 받지 않은 불법행위 ③공적인 자금을 피해를 주는 계약, 서비스, 재화와 관련된 공무원의 개인적 합의 ④공공재원의 오·남용 ⑤위조서류 발급 ⑥불법거래 영향력 행사 ⑦인·허가의 불법적 승인 ⑧서류변조 ⑨공공기관 정책지원 기피 또는 태만 등이 있다(Walter 1996, 269).

8) Tulchin, Joseph S.(2000), *Combating corruption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 C.: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Little, Waler(1996), *Political corruption i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II. 식민시대의 부패(16-18세기)

베네수엘라는 3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였다. 스페인 식민시대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민지 고유 언어보다 스페인어가 특권적이었고, 실제경험과 현실에 대한 스페인 법률 인식이 우선적이었으며, 시골과 농민보다 도시와 시민이 보다 특권적이었다. 즉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와 문화는 수직적으로 구성되었고 ‘언어와 기억의 식민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식민시대 베네수엘라 사회는 매우 위계적이었고, 스페인 관리들은 식민사회의 특권적 위치를 점하면서 자율성을 유지했다(Rivas 2002, 102).

역사적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식민지의 물질적인 부를 자신의 세습재산으로 간주했고, 식민지의 절반을 왕실의 소유로 천명했으며, 왕가를 제외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했다. 오늘날에도 베네수엘라에서 자연자원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은 합스부르크가의 이러한 전통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광물자원은 사회복지보다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식민관리는 이러한 부에 접근할 수 없었고 토지와 원주민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형성해야 했기 때문에 사탕수수 및 다른 작물재배가 식민지에 빠르게 확산되었다(Carr 2006, 196-197). 또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 합스부르크가의 ‘피렌체 병’이 베네수엘라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퀸트 바루디오 2004, 133-137).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식민시대 합스부르크가의 관리는 전문적인 직업관리가 아니었고, 그들의 급료는 지방재원을 개발·이용하여 충당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8세기에 스페인 부르봉 왕가는 합리적·법적 관료제를 창설하려 했고, 그러한 시도는 먼저 스페인에서 그리고 이후 식민지에서 시도되었다(김달관 2004, 414).

스페인인 식민시대에 금·은으로 부가 급격히 증대했고, 이에 제국주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페인은 16세기에 식민지에서

막대한 금·은을 가져갔고, 금·은에 의한 경제 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게다가 지속적인 경제 붐 속에서 수은 제련법의 개발로 포토시 광산에서 금·은 생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새로운 경제 붐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식민지의 막대한 부가 스페인으로 유입되었는데, 식민지의 금·은은 법적으로 스페인 왕가에 속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역할뿐만 아니라, 왕실재정과 국가재정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Karl 1997, 33-34).

식민초기부터 모든 수준에서 관리들은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민관리는 스페인 왕의 재정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사적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했고, 또한 지방 이해당사자와 공모하여 원주민을 착취하고 식민지의 토지·노동력·자원에 대한 규정을 우회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국가재정 확대를 위해 경험 없는 이들에게 고위직을 매관매직하면서 부패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을 결탁 형태로 극복하려 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공직이 상업적 투자 대상으로 변하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Miller 1996, 52). 식민시대 주요한 부패 네 가지는 불법교역, 뇌물, 정실주의와 후원-지지관계(Clientelismo), 공직매매이다. 이 중에서 스페인 왕실에 의한 공직매매는 정치부패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독립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친족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나 충성을 구매하는 '후견'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관리 임명은 그러한 직위에 있거나 그러한 직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공직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대감을 남겨 놓았다. 따라서 관리들의 행동은 200년이나 100년 전의 그들 전임자와 비슷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패행태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부패현상 축소는 의심스럽다(Miller 1996, 68).

그럼에도 식민시대 관리의 부패는 스페인 제국주의의 약화와 강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즉 부패는 부분적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했는데,

스페인 왕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미약한 주권 하에 분산되어 있는 식민사회를 묶어주는 도구를 제공했다. 이후 부르봉 개혁은 부패를 일소하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식민지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스페인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전승되었다. 스페인 식민 시대부터 독립 시까지 스페인의 역사적 유산을 이어받은 베네수엘라 사회에서 공직은 사적 개인의 연장으로 인식되었다(McFarlane 1996, 60-61). 당시 라틴아메리카는 풍족하고 번창했기 때문에 식민관리는 나태와 사치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왕과 고위관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이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즉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적이익에 대한 공적이익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치권력을 축소시켰고, 또한 당시 식민지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두려움과 같은 강제력이 부재했고 그 결과 부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McFarlane 1996, 44). 이러한 식민시대 상황은 ‘복종하지만 따르지 않는다’(Obedezco pero no cumplo)라는 경구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펠란(J. L. Phelan)의 연구⁹⁾에 의하면 식민시대 부패의 주된 요인은 첫째, 식민관리에게 지급되는 낮은 급료 때문이다. 부왕은 높은 급료를 받고 종종 독립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 그러나 식민관리들은 낮은 급료로 인해 부패가 일상화되어 법관(Audiencia)에서부터 주지사와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발생했다. 이러한 다층적(계급적·수직적) 행정체제에서 부패는 내생적인데, 왜냐하면 관리들의 보수는 낮고 보수의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스페인으로 돌아갈 희망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유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베버 분류에 따른 가부장적 국가(Patrimonial State)와 합리적·법적 국가의(Rational/Legal State)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 합스부르크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형태와 현대적인 국가형태의 복잡한 혼합 상태라는 것이다. 즉 식민시대는 한편으

9) J. L. Phelan(1967), *The Kingdom of Quito in the seventeenth century: Bureaucratic Politics in the Spanish Empire*, Madison(McFarlane 1996, 49-50, 재인용).

로는 중세적 군주제에 의존했는데, 권력은 왕과 왕가에 기초했고 관리들은 군주의 개인적 봉신으로 왕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임명되었다. 식민시대에 공무는 왕가의 수입을 관리하는 것으로 왕가의 개인적 용무로 취급되었다. 다른 한편, 이상적인 합리적 관료제도 존재하여 관리들은 교육과 훈련에 따라 선택된 전문가로 여겨졌고, 명령계통은 체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조직되었으며, 급료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스페인 식민정부는 가부장적 관료제와 현대적 관료제의 혼합형으로 부패와 비효율이 상존했기 때문에 스페인 왕실도 정기적으로 감독했고 개혁 캠페인도 시도했다는 것이다.

앤드리언(Kenneth Andrien)의 연구는¹⁰⁾ 부패의 원인과 관련하여 식민시대 재정행정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권력이 사적기구와 공적기구에 분산되어 있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중적 정부구조로 징세업무를 민간업자에게 하청을 주었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불법적 행위와 책임회피가 가능했으며, 법률과 규정을 선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복잡함과 지방 관리의 자율성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Carr 2006, 224-225). 이러한 문제들은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었으나 스페인 왕실이 재정수익 확대를 위해 공직을 판매했던 17세기 이후에 악화되었다. 이후 일반적으로 식민관리들은 스페인 국왕보다 식민지 부왕과 더 긴밀한 결탁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식민시대 부패의 원인은 첫째, 식민지의 풍부한 금·은으로 인해 스페인 정부가 국민의 물가안정이나 소득안정 등 경제적 측면을 경시한 채 충분한 재정확보라는 정치적 측면을 중시했고, 왕실재정과 국가재정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스페인 정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스페인의 영향력과 강제력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셋째, 식민행정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징세업무를 민간업자에게 하청을 주면서 부패가 더욱 발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식민행

10) Kenneth Andrien(1985), *Crisis and Decline: The Vice-royalty of Peru in the seventeenth centur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McFarlane 1996, 51, 재인용).

정 규정의 복잡함과 불명확성은 식민관리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부패발생을 가능케 했다.

Ⅲ. 독립시대의 부패(1830-1957)

300년 동안의 식민시기에 베네수엘라 크리오요들은 그들의 위상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크리오요 의식’을 획득했고, 그것의 핵심은 스페인 페닌슐라레스가 경시했던 식민지에서 태어난 ‘식민 지역의’ 출신으로서 ‘원주민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독립전쟁 시기에 크리오요의 담론은 국가형성과 관련된 것으로서(Universalismo-Criollismo, Centralista-Federalista) 핵심적인 사회담론으로 부상했고, 독립 이후에 크리오요는 지방의 영향력 있는 까우디오로 성장했다(Rivas 2002, 102-110). 181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베네수엘라 독립시대(1830-1957)의 특징은 까우디오의 지배인데, 그것은 현재까지도 베네수엘라 정치의 특징이다. 특히 독립시대가 베네수엘라 정치의 까우디오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이 시기 동안의 권력은 비록 헌법과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제도화된 권력이 아니라 까우디오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이었다(Morón 1998, 201). 베네수엘라 독립시대에는 4명의 중요한 까우디오가 있는데, 그들은 파에스(José Antonio Páez, 1790-1873), 블랑코(Antonio Guzmán Blanco, 1870-88), 고메스(Juan Vicente Gómez, 1903-35), 히메네스(Marcos Pérez Jiménez, 1948-58)이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베네수엘라 정치·행정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 지방 군부 엘리트인 까우디오는 스페인 왕실의 형식적인 감시·감독이 사라지면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중앙정부 권력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정치권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지방 까우디오는 지역 엘리트와 동맹하면서 후원-지지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독립초기 50년 동안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혼란의 환경 속에서 헌법이 자주 개헌·폐지되었기 때문에 독립의 의미가 손상당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형식적인 선거는 베네수엘

라 정부 정당성 형성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선거정치는 식민시대 부패문화와 결합되었고 까우디요와 가족동맹의 개념으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19세기에 강력한 정당은 부재했고, 비슷한 수준의 선거전에서 까우디요와 가족중심으로 형성된 정당을 바탕으로 경쟁했으며,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도 불확실했다. 이것은 종종 행정부 장관 임기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까우디요와 가족중심의 협소한 인적구성으로 인해 유력한 까우디요가 지원하는 인물의 정치적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또는 정치경력을 안전하게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Miller 1996, 67-76).

20세기 초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까우디요였던 고메스의 부패는 베네수엘라 중요 자원인 석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고메스와 외국 석유기업 사이의 부정부패는 국가 발전보다 석유기업과 고메스 당사자를 위한 것이었다. 석유기업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생산이라는 핵심적인 목표를 성취했고 고메스는 권력유지와 개인적인 부를 상당히 축적했다. 석유기업의 세계시장에서 경쟁으로 고메스는 그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개인적인 부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경쟁의 장점을 활용했고, 의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석유기업 협상권을 신설했으며, 석유관리를 위해 광산국(Office of Mines)도 창설했다. 또한 1922년 석유법을 개정했는데, 이러한 고메스의 법 개정에 대한 호스만(Ricardo Hausmann)의 비판은¹¹⁾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새로운 석유법은 사적소유권의 국가로 이동과 국가개입 확대로 근본적인 권력이동을 대표한다. 둘째, 새로운 법은 베네수엘라 주권을 손상시키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 즉 고메스와 외국자본과 동맹은 예상치 못할 정도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 재조직을 허용했다. 셋째, 새로운 법은 국가재정 수익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즉 전통적으로 세관 수익이 국가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새로운 석유법으로 인해 석유수익의 국가재정 기여도가

11) Hausmann, Ricardo(1981), *State Landed Property, Oil Rent and Accumulation in Venezuela: An Analysis in Terms of Social Relations*. Ph. D. diss. Cornell University(Karl 1997, 78-79, 재인용).

관세 수익을 증가했다.

고메스는 억압적 체제와 석유수출에 따른 재정수익과 밀접한 관계 때문에 ‘석유독재자’로 불리운다. 고메스는 석유수출 확대를 위해 외국 석유기업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고메스의 측근들은 국가 재정을 마치 개인적인 것인 양 사용했다. 고메스는 국가재정 증대로 인해 외채탕감과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했고, 이때 석유산업과 관련된 도시 중산층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석유 붐에 따른 주요한 수혜자는 고메스 자신과 그의 측근이었다. 또한 군의 현대화 추진으로 고메스 동향 출신이 군부의 중요한 직위를 맡으면서 군부도 포함되었으며, 이후 군부는 고메스의 권력 도구가 되었다(McCaughan 2005, 80).

독립시대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앙집권화가 미약했기 때문에 지방의 까우디요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군사력을 보유하며 중앙집권적 국가형성을 방해했다. 그러나 강력한 까우디요인 고메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방 까우디요에게 대통령의 권위를 강요했고, 전국적인 행정과 재정의 안정된 체계를 세웠으며, 군대를 중앙집권화 및 전문화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을 향상시켰고, 근대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형성시켰다(Yarrington 2003, 10-11). 이렇게 고메스는 국가형성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었고, 고메스 사후에 대통령이자 까우디요였던 히메네스도 국가재정에 관한 부패를 저질렀다. 히메네스는 1950-55년 사이에 국가재정의 30%를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했는데, 건설계약 대부분이 히메네스와 불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석유수출 수익에 따른 국가재정 증대 때문이었다(McCaughan 2005, 98). 히메네스 대통령 당시 부패 경향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러한 결과로 1958년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히메네스가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폰토피호 협약 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 독립시대의 부패는 정부와 깊은 연관성이 있고, 부패 수준은 투자 사이클, 외국투자형태, 정권의 성격 등에 따라 변모했

다.12) 따라서 정권과 외국투자 성격의 변화는 베네수엘라 고유의 부패형태를 변모시켰다. 부패형태 변화 중에서 중요한 것은 원료나 자원과 관련된 민간부문에 외국 투자가 이루어질 때 부패가 보다 제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Kreuzer 1996, 86-87).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정치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20세기 초반에 의미 있게 변모했다. 즉 석유수출의 증대는 정부가 직면한 재정부족을 해결했고, 이것은 수입품 구매를 위한 외환을 제공했으며, 이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로 인한 수익 증대는 독립 이후 외채 재협상을 허용했고, 유럽과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중앙집권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까우디요의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지방과 전국 수준에서 까우디요를 보다 확실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자유주의적 이상이 기업과 시장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면, 스페인 정치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국가 이상은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압력도 국가의 역할로 인식함으로써 국가 개념에 보다 적극적인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적극적 국가 개념은 역설적으로 외국투자와 기업성장에 부패를 조성하는 새로운 기회를 정치가와 관리에게 제공했다(Miller 1996, 74).

독립시대의 대표적인 까우디요인 고메스가 부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안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전유(appropriate)하고, 이 자원을 측근에게 분배할 수 있었던 능력 때

12) 외국인의 간접투자 경우에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대부로서, 부패의 주된 요소는 중개인에게 주는 커미션, 공채재협상 과정에서 지급, 조달사업 시 자금을 사용할 때이다. 간접투자가 일시적이고 적은 자본이 투입된다면, 직접투자는 보다 장기적이고 자본규모가 크다. 직접투자는 투자국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강력한 대통령, 강한 의회, 민족주의로 특징되는 나라에서는 보다 정교한 부패수단을 사용한다. 해외직접투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광산·석유·철도·공공 생산에서 여러 부문이 연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허가가 필요하고, 이때 기업은 허가와 기업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외국투자는 민간기업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독점적 조건으로 유지되어 정부의 지속적 통제를 필요로 하고, 이때 임금인상, 이익하락방지, 새로운 투자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 셋째, 외국기업은 일상적 운영을 위해 정치인이나 관리와의 의존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문이었다. 고메스는 그의 측근인 지방 관리와 군의 동맹으로 전유과정 지휘가 용이했고 이들의 충성으로 정치권력을 중앙집권화할 수 있었다(Yarrington 2003, 12). 즉 고메스의 통치 27년간 국가 권력통제와 중앙집권화는 정치적 측면에서 필요한 시기에 전리품을 배분할 수 있었던 능력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독립시대 베네수엘라 사회의 부패는 정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중요 정치인과 관련된 기업은 대중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국가권력 정당성을 확대했다. 즉 부패한 기업의 부당이득 확대가 대중의 일상에서 반복됨으로써 대중은 고메스 정권의 규정과 권력을 받아들이게 되고 정권이 지속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Yarrington 2003, 22). 한편 부당이득은 정치체계에서 상하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고메스와 측근들의 동맹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이에 이들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어떤 경우는 이러한 협력이 여러 해 지속되었고, 이것은 기업이 생산하고 거래하는 기초로도 작용했다. 이러한 협력은 불문율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그것은 부당이득의 전리품을 광범위하게 배분하는 것이었다. 이에 베네수엘라 대중에게 고메스 정권은 통합되고 전국화된 부당이득 체계로 인식되었다. 즉 일반적인 경제행위를 복종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메스의 부당이득 체계는 국가권력을 강화시켰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민의 저항을 촉발시켰다(Yarrington 2003, 29-30).

결론적으로 독립시대에는 첫째, 스페인 영향인 미약한 국가형성으로 인해 국가권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까우디요에 의한 부패가 발생했다. 둘째, 친족주의와 후원-지지관계의 영향인 까우디요의 개인적 정치지배로 인해 정부와 정당의 미약한 발전과 폐쇄성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했다. 셋째, 합스부르크가의 피렌체 병으로 인해 까우디요의 석유자원과 관련된 부패가 발생했다.

IV. 폰토피호 협약 체제와 부패(1958-1998)

1926년 베네수엘라의 전통적인 수출품인 커피를 석유수출이 능가하기 시작했다. 1925-1986년 동안 베네수엘라 석유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도 지속적이었다. 이에 따른 중산층 형성과 도시화로 인해 1945-48년 3년간의 민주화 경험(Trienio)의 물적 토대와 주요 정당이 형성되었다. 베네수엘라 주요 수출품이 다른 국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전통적으로 '친정부적 성향'(Prosystem mentality)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요소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국민은 히메네스 대통령의 부패에 저항했고, 이에 1958년 10월 중도좌파의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AD)과 중도우파의 기사당(Comité de Organización Política Electoral Independiente: COPEI)의 지도자들이 석유수익에 기초한 연립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한 '폰토피호 협약'(Pacto de Punto Fijo)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40년간(1958-1998)의 폰토피호 협약 체제가 형성되었다.

폰토피호 협약 체제는 내부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며 외부적으로는 봉쇄·억제를 실행하는 메커니즘이다. 1958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폰토피호 협약에 서명했고, 서명자들은 대통령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폰토피호 협약의 정치·경제 정책에 동의했으며, 석유에 기반한 발전과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폰토피호 참여정당은 정치적 휴전을 유지했고 선거결과에 득표비율에 따라 권력분점이 보장되었다. 누가 선거에 승리하는가와 상관없이 각 정당에게 공직과 정부계약에 대한 일정한 접근을 보장했는데, 예를 들면, AD와 COPEI 양당에 장관직을 배분하고 복잡한 업관제를 통해 폰토피호 협약의 모든 서명자에게 정치적 생존을 보장했다. 따라서 폰토피호 체제는 안정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되었고, 이에 행정의 일관성은 정치적 안정에 밀려났다.(Levine 1994, 155). 이것은 베네수엘라 정당 부패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1958년 폰토피호 체제부터 페레스 대통령(Carlos A. Pérez, 1973-78)까지 석유수출로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1961년 석유수익으로 헌법에 의한 광범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고, 산업화 전략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 성과는 정치 환경을 안정시켰고, 이에 폰토피호 체제와 AD·COPEI 양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명백했다. 1973년 중동지역의 혼란으로 석유가격이 10배 상승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익도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1976년 석유산업 국유화로 인해 국가재정 수익이 170% 상승했고, 페트로 달러와 국제신용에 용이한 접근은 국가역할을 확대시켰다(Ellner 2003, 114-115).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석유가격의 지속적 하락과 국제 이자율 상승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훼손시켰고, 경제 불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 불황에 따른 정부정책은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소득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은 계급분화를 촉발시키면서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폰토피호 체제 하에서 1980년대의 경제정책과 실천은 베네수엘라 사회를 정치적 연줄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파편화시켰다(Ellner 2003, 115-119). 이에 1980년대부터 폰토피호 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석유수익에 기초한 수입대체 모델은 하락했고, 1982년 외채위기와 1983년 평가절하와 외환통제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식변화를 초래했다.

표1) 베네수엘라 석유의 경제 비중

| 구분 | 재정기여도 (%) | 수출에서 석유비중(%) |
|-----------|-----------|--------------|
| 1958-1959 | 54.7 | 92.4 |
| 1960-1961 | 46.1 | 92.0 |
| 1962-1963 | 50.7 | 93.4 |
| 1964-1965 | 65.2 | 93.2 |
| 1966-1967 | 64.5 | 92.2 |
| 1968-1969 | 60.7 | 92.0 |

| | | |
|-----------|------|------|
| 1970-1971 | 60.8 | 91.3 |
| 1972-1973 | 67.1 | 92.4 |
| 1974-1975 | 80.9 | 95.0 |
| 1976-1977 | 61.5 | 94.7 |
| 1978-1979 | 58.9 | 95.0 |
| 1980-1981 | 70.5 | 95.0 |
| 1982-1983 | 56.8 | 93.9 |
| 1984-1985 | 56.9 | 93.2 |

자료 : Morón 1998, 360.

1989년은 폰토피호 체제의 분수령이다. 1989년 2월 대중폭동은 사회적 긴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시그널이었다. 페레스가 두 번째 대통령 취임(1989-1993) 얼마 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과거 정책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즉 1958년 폰토피호 체제를 주도했던 AD의 페레스 대통령 본인 스스로 국가개입과 보호주의를 파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도한 것이다. 이후에도 실정으로 1992년에 두 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2월에 차베스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도 실패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쿠데타 실패를 인정하는 1972년 초의 TV연설에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각인시켰다. 이어서 동년 11월의 군사 쿠데타는 2월 쿠데타보다 폭넓은 군부와 국민의 동맹이 형성되었다. 1992년의 군사 쿠데타 요인은 부패와 경제위기에 대한 폰토피호 체제의 실패 때문이다. 즉 1992년 폰토피호 체제의 효율성이 급격히 하락했고, 다른 한편으로 전국 수준에서 다양한 이해를 수렴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실패했다(Guevara 2005, 10). 이러한 만연한 부패는 AD와 COPEI 양당체제의 제도적 부패 확대가 주된 요인이었는데, 특히 비례대표제는 대중을 대표하기보다는 공직 배분수단이 되었다(Little 1996, 283-284).

폰토피호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수익이었으나 1982년 외채위기 이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때부터 정치부패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경제 호황기에 일반대중은 부패를 관용으로 받아들였으나, 1980년대에 이르면서 베네수엘라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용·성장·소비수준과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부패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예를 들면, 1983년 레카디(Recadi) 스캔들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부패사태이다. 레카디 스캔들은 1983년 고정 환율제도에서 4개 환율(Régimen de Cambio Diferencial)로 국가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110억 달러의 부정부패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것은 정부가 정당의 영향력에 의해 유리한 환율을 제공함에 따라 정치부패가 발생한 것이다. 레카디 스캔들의 특징은 외국기업, 정당, 고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베네수엘라의 주요한 경제, 정치 엘리트가 참여한 대형 부패사건인데, 최종적으로는 귀화한 중국인에게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으로 폰토피호 체제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대되었고, 베네수엘라에서 부는 국민의 재산을 ‘훔친 것’으로 인식되었다(Ellner 2003, 116). 이후에도 중요한 정치부패가 발생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1988년 페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후 불법적인 1700만 달러 비밀구좌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것이 그것이다. 불법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페레스가 개인적인 용도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오랫동안 안정된 국가를 유지했던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의 횡령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폰토피호 체제가 위협받게 되었다. 공적인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선거에 의한 책임과 처벌이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국민에게 폰토피호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촉발시킨 것이다(McCaughan 2005, 133-134).

1960년대 폰토피호 체제로 인해 AD와 COPEI 사이에 형식적 연합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공식배분에 기초한 엽관계 활용, 정당자금 지원, 민간기업·행정부·국영기업 순환업무, 정당과 기업의 사적 네트워크, 재정연계성, 심지어는 평화로운 노조관계 등 폭넓은 범위에서 연합으로 부패구조가 형성되었다(Karl 1997, 106). 게다가 1959-1980년 사이에 정부는 민간투자의 13%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고, 석유 붐 시기인 1970년대 중반엔 민간투자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Crisp 1998, 38). 폰토피호 체제에서 부패는 특히 고위관리에서 심각

했고, 베네수엘라 정치엘리트의 부패와 사치스런 소비는 미주대륙에서 유명했다. 폰토피호 체제의 부패로 1980년대 베네수엘라 산업전반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으며,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전반이 경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패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어렵게 했고 결국 1989년 대중반란으로 나타났다(Gott 2005, 21-22).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폰토피호 체제의 부패로 인해 정치제도와 정당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페레스(1989-1993) 뿐만 아니라 칼데라(Rafael Caldera R. 1994-1998) 정권 동안에도 부패로 인해 폰토피호 체제의 정당성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베네수엘라의 양당체제는 30년 동안의 안정기에서 하강기에 진입했고 1998년 대선에서 붕괴되었다(Ellner 2003, 161). 1993년 여론조사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은 제도 중에서 정당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불만요인인 경제문제보다 정치부패가 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부자에서 서민까지 당시 대부분의 국민은 폰토피호 체제에 비판적이었으며, 폰토피호 체제를 비민주적 정부형태로 인식했다(McCoy 1995, 129). 이후 AD와 COPEI 양당체제가 약화되면서 의회에서 다수의 정당이 출현했다.

폰토피호 체제에서 부패는 석유노동자가 중심이면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베네수엘라노동연맹(CTV)과도 관련이 있다. 폰토피호 체제의 한 축인 AD에 속하는 CTV와 석유산업과의 협력은 폭넓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에 기초했다. 이들의 석유수익 공유는 폰토피호 체제의 후원에 기초했는데, 그것은 높은 무역장벽, 용이한 수입(import), 수익계약과 보조금지급 등이다. 이러한 협력은 정치인과 CTV 사이에 호의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형성했다.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는 전통적인 부패 중의 하나로서, 석유가 베네수엘라 폰토피호 체제에서 부패의 핵심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Karl 1997, 57).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수출은 국가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통적으로 일부만이 베네수엘라 국부를 향유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대부분의 국민은 빈곤상태에 있다. 즉 총인구 중에서 상위 10%

가 국민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인구의 40%가 극빈층에 해당하며, 인구의 80%가 최소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이다. 실질구매력도 1989-1995년 사이에 35%가 하락했다(Gott 2005, 173). 이러한 폰토피호 체제의 축적된 부패로 인해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폰토피호 체제가 붕괴되었다.

결론적으로 폰토피호 체제에서 부패의 원인은 후원-지지관계의 영향에 따른 폰토피호 체제의 폐쇄성 때문이다. 한편으로, 폰토피호 체제는 석유수익에 의한 국가재정으로 기업에게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기업제품구매, 산업보호,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재계는 지속적으로 폰토피호 체제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신뢰를 획득해야 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재계의 유착관계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석유가격 하락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자 국가보조금도 감소했다. 이에 부패에 의한 유착관계로 비효율이 축적되자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1989년 대중반란과 1992년에 두 번의 쿠데타로 나타났으며, 폰토피호 체제의 부패와 비효율의 임계점은 1998년 정점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폰토피호 체제의 폐쇄성은 AD와 COPEI에 의한 양당구조와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나타났고, 이것은 부패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폰토피호 체제의 효율성이 하락했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으며, 체제의 문제해결 능력도 하락했다. 이러한 요인은 1998년 차베스의 등장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V. 차베스와 네오포폴리즘의 등장(1998-2006)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폰토피호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즉 차베스 승리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폰토피호 체제가 야기한 부패와 이에 따른 경제악화 때문이다. 일례로 1993년 카라카스에서 많은 연금가입자들이 정치인의 부패와 과실에 의한 연금재정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베네수

엘라의 특징인 부패를 비판했고 차베스를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패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당시 일반적인 베네수엘라 정당과 정치체제에 대한 평균적인 국민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지난 40년간 베네수엘라를 지배했던 전통적인 정당인 AD와 COPEI가 부패해 있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최근 20년 동안 사회·경제적 위기도 폰토피호 체제 때문이라고 규탄했다(Lopez-Maya 2000, 22).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인은 유권자의 투표 지지를 위해 정부와 개인 사이의 계약을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계약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AD와 COPEI는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수익을 적절히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문화로 인해 페레스의 경우에도 의회와 야당지도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도덕적·행정적 책임이라고는 인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페레스는 자신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지 않았고 따라서 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 정치체제 형성과정에서 후원-지지관계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를 단시일에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Tarver 2005, 134-135). 또한 베네수엘라에서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석유수익으로 국가재정이 풍부했고, 정부가 국가재정을 사용하여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냈을 때 일반국민은 개인의 부당이득을 허용했으며, 베네수엘라 정치도 그렇게 작동했다.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1980년대까지는 적용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자신’이 부패한 행위를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행정부’가 부패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것이다(Tarver 2005, 135).

이러한 정치부패에 실망한 국민의 기대로 차베스는 1998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부패척결보다는 정치개혁, 사회양극화 및 빈곤퇴치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헌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신헌법은 직접민주주의 확대, 공권력 확립,

군의 참정권확대 등 차베스의 정치적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 정치 이상의 구체성 결여와 불명확성은 신헌법의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빈곤층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베스 대통령의 임기초반 3년 동안에 빈곤층에 혜택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즉각적인 실업, 빈곤, 범죄, 비공식 부문 고용 등의 감소로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차베스 정부는 신헌법을 우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경제정책 분야에도 전통적인 로비활동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차베스 정부의 실천과 차베스 개인에 대한 평가의 분리는 야당의 공격 구실로 작용했다(Ellner 2003, 6).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가재정의 중요한 기여를 하는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와 군부, 정치 분야에서 부패를 적멸했다는 부분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정치 분야의 부패는 AD와 COPEI에 의한 폐쇄적인 정당주도정치(Partidocracia)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960-1970년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AD와 COPEI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경향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변모했다. 이에 차베스가 푼토피호 체제를 붕괴 시킴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정치구조를 극복하면서 부패구조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정치 분권화로 소수야당에게 예전보다 많은 정치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감시·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 AD와 COPEI 소속 연구소에 지원하던 1백만 달러와, AD 소속 교사에게 매년 지급하던 160만 달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차베스 정부는 방만했던 PDVSA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01년 새로이 석유법을 마련했고, 이에 PDVSA의 활동별로 분리된 항목으로 경영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불투명한 계정항목으로 PDVSA가 가격할인과 인플레이 비용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새로운 석유법에 따라 이득·손실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를 가능케 했다. PDVSA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부패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차베스 정부도 처음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PDVSA의 석유판매 수익의 낭비와 불투명한 관리는 정부재정의 지속적 하락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동안에는 PDVSA의 수익이 여러 사람에 의해 누출되었고, 비밀리에 외국은행에 예치되거나 정부기관이나 기금에 분배되었다(Guevara 2005, 53). 이에 차베스 정부는 PDVSA 위기의 근원이 부패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석유법 적용과 도덕적 접근도 함께 병행했다.

다른 한편, 2002년 말에는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반대의 표시로 PDVSA 고위 경영진·관리직·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석유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러한 여파는 세계 석유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베스 정부는 불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경영진과 관리직을 포함하여 총인원의 50%를 해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의 모든 관리·경영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했고 직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부패한 경영진과 노동조합을 쇠신할 수 있었다.

차베스는 군부의 부패적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1958년 폰토피호 체제에서 비정치성, 민간권력우선, 국가안보우선 원칙을 받아들였다. 이에 민간인이 군대를 지배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정치체제가 안정될 수 있었으며, 군의 전문화를 성취할 수 있었다. 반면 단점으로, 고급장교가 자신의 후임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베네수엘라 군부의 뿌리 깊은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Guevara 2005, 67). 또한 고급장교는 의회를 통과해야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군인이라도 정치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인간관계가 부족한 경우에 진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차베스 정권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 승인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①행정부와 군부의 결탁으로 의회의 위상하락 ②군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영향력 감소 ③행정부에 비판적인 군인이 진급 시 배제되는 애로사항이 그것이다(Ellner 2003, 157-158).

1998년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은 이처럼 20년간의 경제악화와 부패

에 따른 베네수엘라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차베스의 등장과 함께 베네수엘라 사회에 포퓰리즘이 등장했는데, 차베스의 포퓰리즘은 이전의 포퓰리즘과 차이가 있다. 예전의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민족주의적 성격과 미국 해계모니에 대한 반대, 국가개입주의와 재분배, 사회적·정치적 동원에 있었으나 차베스의 포퓰리즘은 양상이 달랐다. 주요한 차이는 예전의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대중정치의 시작과 수입대체전략(ISI)이 시작하던 시기와 서로 일치하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대중정당과 노동조합의 조직화 또는 발전주의적 국가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수입대체전략은 붕괴했고, 국가 주도적 발전모델이 파산했으며,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압력과 정치압력이 높다. 또한 이미 대중동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중정당과 노동조합에 의한 전략적 정치공간을 많이 상실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포퓰리즘과 대조적으로 차베스는 그의 대중운동 조직자원으로 노동운동에 활용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조직화 수준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론에 민감하다. 정치적 지지에 대한 낮은 조직화는 베네수엘라 사회양극화에 따른 계층불화를 조직적 수준으로 이끌어 내는 차베스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차베스는 계층적 기초에 의한 정치적 차이를 선거에서 활용했지만, 선거에서 이용했던 정치적 차이를 시민사회와 정치 분야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베스는 사회·정치적 대안을 제도화했다기보다는 국민의 감성이나 선호를 차별화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했다(Ellner 2003).

차베스 대통령은 조직화된 정치적 지지 세력이 부족한데, 특히 가톨릭, 기업, 군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반대중이 AD와 COPEI와 같은 조직화에 염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이해했고, 이에 따라 조직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대중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MVR이라는 느슨한 정치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MVR은 정치적 '정당'이라기보다는 정치 '운동'에 가깝다. 게다가 보다 중요한 것은 MVR이 조직규칙에 따르기보다는 차베스 개인의 카

리스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Weyland 2001, 82). 전반적인 조직적 약체성이 차베스 개인의 카리스마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되었지만, 그럼에도 1998년 차베스의 등장은 푼토피호 체제의 단절과 새로운 정치인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또한 차베스의 등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중요성이 없던 국민의 정치 주체로서의 등장을 의미했다. 차베스의 대선승리는 20년 동안 정치부패와 빈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사회적 변화의 폭이 광범위했음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헤게모니 축이 탄생했음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논쟁이 보다 베네수엘라 현실에 근접하도록 했다(Ellner 2003, 90-91). 차베스는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60% 득표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기권율이 44%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차베스 정부에 대한 의미 있는 반대 세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Canache 2002, 85). 그리고 2002년 두 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두 번의 쿠데타와 반쿠데타는 차베스 정부의 취약성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반대 세력의 정치적 성숙도도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VI. 결론

식민시대 부패의 원인은 첫째, 당시 식민지의 금·은이 왕실의 세습재산으로 간주되면서 왕실재정과 정부재정 구분이 혼재했기 때문이다. 둘째, 스페인 모국과 베네수엘라 식민정부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강제력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식민행정이 사적기구와 공적기구에 이중적으로 분산되었고 규정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독립시대 부패는 첫째, 한편으로 스페인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 국가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한편 독립으로 식민행정이 소멸됨에 따라 까우디요가 성장하면서 이들에 의해 부패가 발생했다. 둘째, 식민행정이 소멸됨에 따라 정부의 정통성이 선거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에 까우디오의 개인적인 선거정치는 스페인의 영향인 친족주의와 후원-지지관계에 따라 부패가 발생했다. 폰토피호 체제에서 부패의 원인은 합스부르크의 피렌체 병과 후원-지지관계의 영향으로 석유수익의 중앙집권적 체제에 의한 폐쇄적 배분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 배분은 석유수익 감소로 더욱 불균형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사회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것은 차베스의 네오포폴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했다.

식민시대 부패의 역동성은 관리가 식민지의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여 급료를 충당하도록 기대되었고, 스페인 왕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며, 견제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독립시대 부패의 역동성은 중앙집권적 권력의 부재로 까우디오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에 까우디오가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했다. 즉 유력한 까우디오는 19세기에 비옥한 토지와 목초지를 차지할 수 있었고, 20세기에 석유관련 이권으로 재원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에 축적된 재원을 협력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폰토피호 체제 부패의 역동성은 석유수익에 기초한 국가재정과, 독립시대와는 반대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폰토피호 체제라는 중앙집권적 제도화를 시도했으며, 석유국유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까지 석유수익을 지속적으로 배분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석유수익 하락으로 배분 몫이 감소함에 따라 배분갈등이 격화되면서 1998년 폰토피호 체제가 붕괴하게 되었다.

미주기구(OAS)는 1996년 베네수엘라에서 국가발전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부패적결을 위해 ‘반부패미주회의’(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를 개최했고 22개국의 미주국 관련자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500명의 응답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가 역사적·문화적 전통의 일부분으로 관용되어 왔기 때문에 부패가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라고 결론지었다(Schneider 2000, 211). 레카디 부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베

네수엘라에서 사적부문과 공적부문의 이분법은 베네수엘라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민간부문의 높은 카르텔적 특징과 국가의 독점적 특징 때문이다. 즉 민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문이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기업과 유착이 깊어진다. 이러한 부패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이 합쳐진 부당행위의 결과이다. 이러한 부패에 대한 정치적 피해는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기초한다(Little 1996, 273-275). 1992년 두 번의 쿠데타와 1998년 차베스의 승리는 이러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말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국제유가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베스의 반대세력이 대중을 진정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En el año 1988, Hugo Chávez había triunfado abrumadoramente en la elección presidencial de Venezuela. Ésto había sido sucedido por la corrupción política del régimen del Pacto de Punto Fijo en el período 1958-1998. La Transparencia Internacional ha definido la corrupción como el abuso del poder público para el beneficio privado. La corrupción es el fenómeno que se está ocurriendo en el mundo entero sin relacionarse con región, nación y raza. Sin embargo, el nivel, la extensión y el impacto de la corrupción se varían en cada país, y aún más, dentro del mismo país la corrupción aparece diversamente según la región y el tiempo. Por ello, el concepto de la Transparencia Internacional podría decirse parcial, puesto que en cada cultura son diferentes las clasificaciones de los sectores públicos y privados, y

además, después de la independencia, en l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han coexistido realmente los sectores públicos y privados. Históricamente, en Venezuela en la época colonial de España las divisiones entre la familia real y el Estado se habían mezclado muy complejamente, y en la época independiente las clasificaciones entre los públicos y privados habían sido difíciles por la emergencia del caudillo fuerte. Y por último en la época del Pacto de Punto Fijo perduraban las corrupciones políticas. Por eso, podría decirse que en la política cultural de Venezuela los públicos y privados han coexistido con mucho tiempo.

La actividad corrupta y su remedio social suceden cíclicamente, y según el tiempo se transforman las percepciones sociales para castigar la corrupción. Por ello, este artículo analiza las transformaciones de los sentidos de corrupciones en Venezuela según la época a través del cómo y el porqué. El propósito concreto de este artículo es, en primer lugar, analizar las bases y los sentidos de corrupciones en el aspecto histórico con la siguiente periodización: ①la era colonial(el siglo de XVI-XVIII) ②la era independiente(1830-1957) ③la era del Pacto de Punto Fijo(1958-1998). En segundo lugar, investigar sobre el dinamismo de corrupciones en Venezuela, y en último lugar, discutir en la emergencia del neopopulismo y Hugo Chávez.

Key Words: Venezuela, Hugo Chavez, Corruption, Populism, Pact of Punto Fijo/
베네수엘라, 차베스, 부패, 포퓰리즘, 폰토피호 협약

논문투고일자: 2006. 10. 17.

심사완료일자: 2006. 11. 03

게재확정일자: 2006. 11. 14

참고문헌

- 김기현(2003), 「차베스 정권의 등장과 위기로 본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변동: 예의주의의 종결인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6, No. 1, pp. 311-347.
- 김달관(2004), 「중남아메리카의 엘리트: 변천과 특징」,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4, pp. 401-436.
- 퀸트 바루디오(2004),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 뿌리와 이파리.
- 전수일(1999), 『관료부패론』, 선학사.
- Canache, Damarys(2002), “From bullets to ballots: The emergence of popular support for Hugo Chāvez”, *Coral Gable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4, Iss. 1, pp. 69-93.
- Canache, Damarys and Michael E. Allison(2005), “Perception of political corruption in latin american democracies”, *Coral Gable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7, Iss. 3, pp. 91-113.
- Carr, Raymond(2000), *Spain: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원중, 황보영조(역), 『스페인사』, 까치, 2006.
- Collier, Michael W.(2001), “Combating corruption in Latin America”, *Coral Gable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3, Iss. 4, pp. 159-164.
- Crisp, Brian F. and Daniel H. Levine(1998), “Democratizing the democracy? Crisis and reform in venezuela”,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40, Iss. 2, pp. 27-62.
- Ellner, Steve and Daniel Hellinger(2003), *Venezuela politics in the Chavez era: class, polarization and conflic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 Friedman, Elisabeth J.(1998), “Paradoxes of gendered political opportunity in the venezuelan transition to democrac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3, Iss. 3, pp. 87-136.

- Gott, Richard(2005). *Hugo Chavez and the bolivarian revolution*, New York: Verso.
- Guevara, Aleida(2005), *Chavez, Venezuela and the new Latin America*, Melbourne: Ocean Press.
- Horowitz, Joel(2005), "Corruption, crime and punishment: Recent scholarship o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0, Iss. 1, pp. 268-278.
- Karl, Terry L.(1997), *The paradox of plen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lly, Janet and Carlos A. Romero(2002), *The United States and Venezuela: Rethinking a relationship*, New York: Routledge.
- Kreuzer, Marcus(1996), "Democratisation and changing methods electoral corruption in France from 1815 to 1914", in Little, Walter (1996), *Political corruption i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pp. 97-112.
- Levine, Daniel H.(1994), "Goodby to Venezuelan exceptionalism: Strong parties and lame duck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6, Iss. 4, pp. 145-167.
- Little, Walter and Antonio Herrera(1996), "Political corruption in Venezuela", in Little, Walter(1996), *Political corruption i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pp. 267-285.
- Lopez-Maya, Margarita and Luis E. Lander(2000), "Refounding the republic: The political project of Chavismo",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May/Jun. Vol. 33, Iss. 6, pp. 22-32.
- Maingot, Anthony P.(1994), "Confronting corruption in the hemisphere: A soci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6, Iss. 3, pp. 49-61.
- McCaughan, Michael(2005), *The battle of venezuela*,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 McCoy, Jenniger L. and William C. Smith(1995), “Democratic disequilibrium in Venezuela”,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7, Iss. 2, pp. 113-142.
- McFarlane, Anthony(1996), “Political corruption and reform in Bourbon Spanish America”, in Little, Walter(1996), *Political corruption i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41-63.
- Miller, Rory(1996), “Foreign capital, the State and political corruption in Latin America between Independence and the Depression”, in Little, Walter(1996), *Political corruption i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65-95.
- Molina, José V.(2004), “Radical change at the ballot box: Cause and consequences of electoral behavior in Venezuela's 2000 elections”, *Coral Gable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6, Iss. 1, pp. 103-135.
- Morón, Guillermo(1998), *Breve historia contemporánea de Venezuel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Niemeyer, Ralph T.(2004), *Under attack: morning dawn in Venezuela*, New York: Universe.
- Nordon, Deborah L.(1998), “Democracy and military control in Venezuela: From subordination to insurrec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3, Iss. 2, pp. 143-166.
- Rivas, Raquel(2002), “Del criollismo al regionalismo: Enunciación y representación en el siglo XIX venezolano”,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7, Iss. 3, pp. 101-130.
- Schneider, Mark L.(2000), “Efforts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ulchin, Josephs, *Combating Corruption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pp. 210-213.
- Tarver, H. Micheal and Julia C. Frederick(2005), *The history of*

Venezuela, Connecticut: The Greenwood Histories of the Modern Nations.

Tulchin, Joseph S. and Ralph H. Espach(2000), *Combating corruption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Weyland, Kurt(2001), “Will Chavez lose his luster?”, *Foreign Affairs*, Vol. 80, Iss. 6, pp. 73-86.

Yarrington, Doug(2003), “Cattle, corruption and Venezuela state formation during the regime of Juan Vicente Gómez, 1908-1935”,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8, Iss. 2, pp. 9-34.